

신년사



서산문화원장
이준호

여유(餘裕)로운 한해 되시길...

먹고 살만하니 문화와 예술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또한 이말 만큼 화려하고 멋이 깃든 말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지니는 의미 또한 상상도 못할 만큼 갖가지로 표현되고 있지요. 사유(思惟)가 필요한 때문입니다.

문화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무엇이 문화이며 문화가 사람에게 주는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목마른 행인에게 물을 길는 여인이 한 바가지의 물을 떠주는데 거기에 버들잎 하나 띄워주는 여유가 문화를 엮어내는 예를 보면 그 물은 정과 사랑이 깃들어 있고 영혼과 영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버들 잎하나 띄웠을 뿐인데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의 사랑을 맺어주는 「모티브」로 작용하기에 무한의 행복이 솟아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잔의 커피로 얻어지는 행복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유란 게으름의 표현과는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속의 여유는 가끔씩 질 높은 행복을 가져다 주곤 하지요. 게으름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삶의 에너지를 재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창조적 사고를 제공하는 찬란한 시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유 속에서 솟아나는 게으름을 즐기면서 한 잔의 커피와 함께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때의 커피 한잔은 누군가와 함께 마시며 무한의 정신적 교감의 행복을 얻을 수도 있고 혼자서라도 무한의 창의력이 가동되는 시간의 매개물일 수도 있기에 더불어 깊은 사유가 전해지는 행복을 만끽하게 된다고 봅니다.

신묘년 새아침은 각박한 모든 것을 떨쳐내고 느긋한 여유 속에서 행복을 창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시간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게 두고 흐르는 시공(時空)속에 몸을 던져 좀 더 나은 자아를 달구어 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빨리빨리 속에서 허둥대는 모습을 떨쳐버리고 느림의 의미를 찾아야하는 여유를 가져봄직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잊고 살았던 것들, 선조들의 슬기와 깊은 역사속의 옛 기억들과 조우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여유는 행복을 만들어 가는 문화적 단어임이 틀림없기에 새로운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신묘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새해 새아침

신년사



서산시장
유상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희망차고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크게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날은 언제나 가슴 벅찬 희망을 주지만, 새해에 우리가 갖는 의미는 보다 특별합니다. 올해는 1등 서산 1등 시민의 미래를 여는 원년이자, 으뜸서산 창출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왔고, 어려울 때마다 화합과 저력으로 시련을 이겨내며 자신감을 키워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모두는 시련을 발전의 기회로 만든 위대한 시민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구제역의 어려움 속에서 갈등으로 얼룩졌던 환경종합타운을 준공시켰고,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첫 삼을 올렸습니다. 전쟁터와 같았던 태풍의 시련을 극복하며 중국 용안항에 국제쾌속선을 띄우는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저력과 화합의 힘을 통해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다함께 노래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부자서산,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통팔달 편리한 도시, 시민 누구나 함께 하는 교육복지도시를 건설합니다.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며, 공정한 지역사회를 구현해 냅시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자 소명입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행복한 서산을 우리가 만들었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니다. 1등 서산, 1등 시민의 문을 활짝 열고 행복한 서산을 위해 전진합니다. 그리하여 서산의 새 역사를 만듭시다.

희망찬 새해 소망하시는 일마다 이루시길 축원하면서,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새해 새아침

신년사



서산시의회의장
김 환 성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과 꿈이 가득한 신묘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서산을 대표하는 명소인 중앙호수공원에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는 등 시민들의 문화향연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습니다.

모든 이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대중성이 최근 문화예술 동향임을 볼 때 모범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서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문화예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아마도 문화예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 큰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는 기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예술사업이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함을 갖게 되면 부실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스산의 숨결’은 우리 서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그간 수많은 성과와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많은 애독자를 확보하여 문화예술도시 서산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도 읽을 수 있습니다.

‘스산의 숨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문화콘텐츠 개발과 전파에 더욱 힘써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저희 서산시의회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시민여러분 모두 신묘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1년 새해 새아침

신년사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 광 호

찬란한 햇살이 온 누리에 충만한 가운데 신묘년의 여명이 밝았습니다.
먼저 서산문화원의 「스산의 숨결」 2011년 1월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희망에 부푼 신묘년의 벽두에서 '바르고 알차게 변화하는 서산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한 의지력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애쓰신 서산교육가족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해 많은 교육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국과학전람회와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수학과과학 경시대회 및 전국소년체전 등에서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방과후학교 및 교육복지투자사업 등의 내실있는 운영과 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국어 강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관내 전 초,중학교에 배치하고 내실있게 활용하여 교육적 성과를 더욱 높이는 등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신묘년 원단을 맞이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분석하고, 2011년의 교육을 설계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한편 숙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들의 지식, 기능, 태도를 고루 갖춘 알찬 실력인 육성에 힘쓰고, 바른 품성을 갖춘 예절 바른 학생을 기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애의 기반 위에 창의적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과 바람직한 교직원문화 조성, 적극적 지원행정의 구현,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교육공동체의 모두의 힘을 모아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를 더욱 활성화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며, 교육복지투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영어 회화 능력 향상에 주력하는 등 지역의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찬 서산교육의 앞날을 위하여 서산교육청 산하 모든 교직원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서산교육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바르고 알차게 변화하는 서산교육'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신 한 번 서산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새해 새아침

서산 문수사 아미타불 복장직물의 민속학적 고찰

장 경 희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차 례

- I. 머리말
- II. 현존하는 고려말 염직 유물
- III. 고려말기의 염직제도와 제작 장인
- IV. 문수사 불복장직물의 문양 비교
- V. 맺음말

새무늬로는 주황색능지직은이 있다. 바탕직물은 염색을 안한 백사를 날실로 하고 씨실은 주황색으로 선염한 견사를 사용하여 색상은 선명하지 않은 편이다. 경사의 밀도는 인치당 72올이고, 조직은 능직에서 가장 기초적인 3매 능직이다. 문양은 은박을 종이 위에 얇게 퍼서 실의 용도로 자른 평은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현재 은박 부분의 은이 공기중에서 산화하면서 검은색을 띠고 있다. 직은의 뒷면을 보면 은박사는 종이 위에 은박을 입힌 은박지를 직물로 제직하기에 적당한 넓이로 잘라서 사용하며 꼬임이 없어 평평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위문양의 크기는 $1.3 \times 1.5\text{cm}$ 이고, 단위문양이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는 문양간의 거리는 $2.0 \times 2.2\text{cm}$ 이다. 새는 부리가 뾰족하고 양쪽 날개를 활짝 펴고 꼬리가 세 갈래로 갈라져 있다. 2열 4마리의 새가 반복되는 문양이며 이 4마리의 새는 사방으로 연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양의 새는 우리의 토속적인 참새와 같은 형태이며, 고려의 공예의장이나 중국의 염직에 나타난 과장되고 화려한 새의 모습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 새의 모습은 고려인이 항상 볼

수 있는 한국적인 새를 문양으로 창출해낸 독특한 예라 할 수 있다.

청색능지조문직금의 바탕직물은 선염한 비단실로 짠 삼매능직물이다. 문양은 평금사가 직물 전체에서 왔다갔다하며 만들어내고 있다. 단위문양은 아래부분이 없어 정확하지 않다. 다만 단위문양은 단독문양이며 문양이 일렬로 늘어서며 단위문양이 좌우로 연속하며 반복되는 2방연속무늬이다. 앞의 중국 새와 비교해 본다면, 중국의 새모습은 매우 복잡하고 문양의 도상까지 파악되는데 비해, 고려의 새는 전체적으로 간결하며 어떤 새를 형상화했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다.

귀갑문으로는 황록색능지 귀갑문능이 있다. 날실과 씨실은 모두 선염한 비단실이며 날실의 밀도는 인치당 130올로서 대단히 치밀한 직물이다. 바탕직물은 3매능직이며 문양은 능직에서도 사선의 골이 위로 올라오는 부문능직이다. 단위문양은 $1.5 \times 1.5\text{cm}$ 이고, 단위문양의 상하가 바뀌지 않은채 사방으로 연속하여 반복된다. 또 문양이 반복될 때 문양과 문양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고 반복되는 외곽선이 서로 맞닿아 있다.

귀갑문은 이중 귀갑문으로 외곽 귀갑문의 0.3cm 안쪽으로 또 하나의 귀갑문이 있으며 그 속에 Y자와 함께 양쪽으로 작은 선이 그어져 전체적으로 사람의 얼굴과 흡사한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이와 흡사한 귀갑문으로는 원대의 출토유물에서 확인된다. 원나라의 귀갑문도 이중의 귀갑문 안에 다른 문양이 들어있는데, 안쪽에 들어있는 문양은 양자가 조금 다르다. 물론 귀갑문의 기본 배열은 일정하여 양자가 서로 흡사해 보인다.

다음으로 복합문양은 여러 가지 단위 문양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문양이다. 이러한 문양은 문양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심문양과 이를 보조하는 보조문양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능화형문에는 문수사유물로 황색사지능화형 초화문직은, 황색사지 능화형조문사, 연갈색 능화형 용문능이 있다. 황색능화형 초화문직에는 '방각'이라는 묵서명이 있다. 이 직은의 날실은 정련이 안된 생사의 모시실이고 씨실은 황색으로 염색된 비단실로서 날실의 밀도가 인치당 60올이고, 단위 능화형 사이의 씨실의 밀도는 50올이다. 이 직은의 바탕조직은 날실 2올이 서로 꼬여 구멍이 뚫어져 있는 사직이고 문양부분은 서로 꼬이던 부분이 평직처럼 날실과 씨실이 1:1로 교차하여 구멍이 막히면서 문양이 나타나고 있다. 평은사로 제직한 곳은 공기중의 산소와 만나는 부분이 까맣게 산화되었으며, 평은사는 직물전체를 왔다갔다 했다. 그리고 은사를 씨실로 짠 곳의 조직은 평직이다.

이 직은에서는 직물의 가장자리인 식서의 처리방법이 눈에 띈다. 식서부분은 평직이고 1cm의 단위 안에 직물 부분의 날실이 9올인데 비하여 식서부분은 14올이다. 사직으로만 문양으로 만들었지만 식서부분은 평직으로 튼튼하게 짚음을 알 수 있다. 식서처리방법은 고려뿐 아니라 현대에 까지 지속되는 기술이므로, 염직기술이 습득되기가 어렵지 막상 익히게 되면 인습적이고 보수적이어서 한번 습득된 기술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문양이 다시 반복되는 거리는 씨실의 방향에서만 5.8cm이다. 중심문양은 4엽의 능화형이 그 안쪽에 위치한 꽃을 2중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보조문양은 능화형과 능화형의 외곽부분에 당초문으로 여겨지는 초화문이다. 황색사지 능화형화문사는 날실은 정련이 안된 모시실이고, 씨실은 황색으로 선염한 비단실로 날실의 밀도는 인치당 76올이다. 날실의 밀도가 앞서 언급한 사지직은과 같은 직물이 아니라 더 촘촘한 또다른 직물이다. 직물의 조직은 사직으로 날실 2올이 서로 꼬임을 만들었다. 중심문양은 2중의 능화형이 가운데의 꽃무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고, 보조문양은 능화형과 능화형 사이에 당초문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4엽의 능화형문은 원나라 시대의 청화백자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던 문양이며, 고려말기의 문양에도 많이 보이고 있다.

연갈색 능화형 용문양은 날실과 씨실 모두 선염한 비단실로 되어 있다. 날실의 밀도는 인치당 160올로서 대단히 치밀하며 바탕조직은 능직이고 문양조직도 능직으로 사선의 방향이 서로 반대되며 은은하게 문양이 보이게 된다. 중심문양은 8엽의 2중 능화형 안에 화염보주를 물려는 발톱이 3개인 3조룡이 들어있는 형태이고, 부속문양은 능화형과 능화형의 사이에 작고 촘촘한 원점문을 배치하여 직물전체가 뻐뻐하게 문양이 채워진 상태이다. 능화형의 크기는 3.5×3.5cm이고, 하나의 능화형에서 다음의 능화형이 반복될 때까지의 거리는 9.5×5.0cm이다. 8엽의 능화형 안의 3조룡은 눈이 부리부리하고 입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보주를 물려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 8엽의 능화형 안에 용이 있는 문양과 유사한 것에는 고려말기로 추정되는 천은사 금동불감의 문양이 있다. 하나는 염직물이고 하나는 금동불감의 천장이라는 재료상의 차이가 있으며, 염직에서는 그 문양의 비중이 크지만 불감에서는 단지 한 벽을 장식하는데 그치는, 즉 문양으로서의 비중이나 그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문양으로서의 친연성이 많아서 고려말기의 시대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구름문으로는 문수사 유물로 암록색 사지 운당초문사와 옥색단지비운칠보문단이 있다. 암록색 사지운당초문사는 문수사 유물의 복장물을 싸는 보자기로 사용되었다. 직물의 폭은 55cm이고, 11자의 묵서“시주 봉순 대부 판 여산군 여”가 써 있으며 사의 곱기는 약 10승 정도이다. 문양은 구름문과 당초문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문양은 자연스럽게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단위문양이 좌우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양은 문양의 특성상 다른 공예품에서 사용한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옥색단지 비운칠보문단은 날실과 씨실을 선염한 비단실을 사용하여 수자직으로 짰다. 날실의 밀도는 인치당 146올이며, 날실과 씨실은 교차점이 적어 표면이 매끄럽다. 단위문양은 영지초처럼 머리부분이 큰 1쌍의 비운문이 중심문양이며 그 사이사이에 칠보문이 보조문양으로 배치되었다. 단위문양이 반복되는 문양간 거리는 4.8×9.8cm이며 단위문양이 전후좌후 4방으로 연속된다.

〈다음호에 계속〉

서산 명종태봉에 관한 일고찰

차 례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와 문헌상 나타난 장태제도
- III. 명종태봉에 관한 고찰
- IV. 맺음말

1. 머리말

1-1) 연구의 계기 및 목적

충남 서산에는 명종태봉이 있다. 행정구역상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에 소재하며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내 문수사 입구에 있는 샷갓모양의 전형적인 태봉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태봉중 규모가 크고 관리도 비교적 잘된 태봉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명종태봉에 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명종태봉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와 정리 내용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던 차에 서산 아라메길 노선 개설을 위한 사전 답사와 스토리텔링을 고민하던 중 명종태봉에 관하여 문헌자료, 사진자료, 고지도 및 풍수지리학적 접근법 등으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나름의 연구 및 정리를 하게 되었다.

1-2) 연구의 범위

충남 지역에는 군왕의 지위에 올라 가봉된 조선의 태봉이 7기에 이른다. 태조(금산군 추부면 소재), 명종(서산시 운산면 소재), 선조(부여군 충화면 소재), 현종(예산군 신양면 소재), 숙종(공주시 태봉동 소재), 현종(예산군 덕산면 소재), 순종(홍성군 구항면 소재)태봉이 그것이다. 당연히 이 모



한 기 홍
컬처플러스 이사
서산향토문화연구회원

두에 대한 비교 고찰의 방법이 의미를 지닐 수 있겠지만 연구의 계기에서도 밝혔듯 서산 아라메길 답사차 시작한 연구이다보니 서산에 소재하고 있는 명종태봉으로 한정하여 명종태봉과 관련된 조선왕조실록, 태봉등록¹⁾, 이왕직의 서삼릉 이봉에 따른 작업보고서 태봉(胎封)²⁾, 호산록, 조선환여승람, 서산군지(1926), 서산시지 등의 문헌자료 고찰과 고지도, 태함, 태호, 금표, 태비, 태지, 제석물 등의 고찰로 한정 했다. 처음 본고를 시작할 때는 서산 아라메길 스토리텔링을 위하여 태봉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폐해와 이에 따른 반발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내용과 전설이나 민담까지 고려해 보았으나 문헌상 관현과의 갈등 이외의 다른 자료가 전무하여 더이상 접근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이에 확보된 미약한 자료만으로 본 논고를 구성 작성하였다.

1-3) 용어의 정리

태봉(胎封)은 가봉(加封)된 국왕의 태실(胎室)을 의미하나 태봉(胎封), 태봉(胎峰), 태봉(胎峯), 태장봉(胎藏峰), 태실(胎室), 태묘(胎墓)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일례로 조선왕조실록에

<현종대왕의 태봉(胎封)은 대흥 원동면에 있는데 신유년 10월에 돌난간을 배설한 뒤에 대흥현을 승호하여 군수를 두었다.> 『정조실록』 8년 9월 15일<보은현을 군으로 승격하였는데 태실(胎室)을 봉안 후 관례대로 승격시킨 것이다.>

『순조실록』 10년 5월 25일

2. 선행연구와 문헌상 나타난 장태(藏胎)제도

2-1) 장태(藏胎)의 역사

문헌상 나타난 장태(藏胎) 기록은 삼국시대 김유신에 관한 장태기록이 최초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신라 진평왕 때 만노군 태수 김서현(金舒玄)의 처 만명(萬明)이 임신한 지 20개월 만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유신(庾信)이라 하고 태를 현의 남쪽 15리에 묻으니 신으로 화 했으므로 이를 태령산(胎靈山)³⁾이라 하였다. 신라 때부터 사당을 두고 봄, 가을로 향을 내려 제사를 지냈으며 고려에서도 그대로 행하였다. 본조 태종 무인년에 이르러 비로소 소재관으로 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속칭 태산(胎山)이라고 한다.” 라는 기록이 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삼국사기』와 『고려사』에도 전하고 있다. 이들 문헌중 『삼국사기』가 가장 먼저 간행었으므로 『고려사』와 『세종실록』은 『삼국사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헌상 남아 있는 장태(藏胎)기록은 다음의 표와 같다.

1) 예조에서 태봉의 관리와 장태과정을 기록한 태봉연구의 중요 자료로 2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일제시대 전국의 주요태봉 54기를 서삼릉으로 이봉하면서 이왕직에서 작성한 작업보고서

3)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진천과 천안 사이에 소재함

〈표-1 고려시대 이전의 태봉〉

번호	주 인 공	시 대	소 재 지
1	김 유 신	신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2	궁 예 대 왕	후고구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치포
3	마한왕 혹은 백제무왕	마한, 백제	전북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태봉산
4	마 한 왕	마한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5	신 라 태 봉	신라	경북 경주시 나원면 소현리 안태봉
6	문 소 국 왕	삼한소국	경북 달성군 의흥면 연계리 안태봉
7	신 라 태 봉	신라	경북 달성군 유가면 본말동 태봉산
8	가 락 국 왕	가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태봉산
9	신 라 태 봉	신라	경남 울주군 산동면 보은리 태봉산
10	가 락 국 왕	가야	경남 창원시 천선동 태봉산

〈표-2 고려시대의 태봉〉

번호	주 인 공	시 대	소 재 지
1	태 조	고려	개성시 박연리 태안 태봉산
2	신 종	고려	김포
3	미 상	고려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4	공 민 왕	고려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5	우 왕	고려	경북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태봉산
6	충 렬 왕	고려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태봉산
7	충 목 왕	고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동 태봉산
8	충 숙 왕	고려	경북 영주시 소백산 내 경원봉
9	강 종	고려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용문사
10	인 종	고려	경남 밀양시 초동면 성안리 태봉산
11	원 종	고려	서흥군

〈표-3 조선시대 국왕의 태봉〉

번호	주 인 공	시 대	소 재 지
1	태 조	조선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산4
2	정 종	조선	경북 김천시 대항리(직지사 뒤편)
3	태 종	조선	경북 성주군 성암면 대봉리(조곡산)
4	세 종	조선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산27
5	문 종	조선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
6	단 종	조선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산438
7	세 조	조선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

8	예	종	조선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9	성	종	조선	경기도 광주시 경안면	
10	연	산	군	조선	미 상
11	중	종	조선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310	
12	인	종	조선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은혜사	
13	명	종	조선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1	
14	선	조	조선	충남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 237	
15	광	해	군	조선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태봉산
16	인	조	조선	미 상	
17	효	종	조선	미 상	
18	현	종	조선	충남 예산군 신양면 죽천리	
19	숙	종	조선	충남 공주시 태봉동	
20	경	종	조선	충북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34-1	
21	영	조	조선	충북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산6-1	
22	정	조	조선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정양리	
23	순	조	조선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24	현	종	조선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25	철	종	조선	미 상	
26	고	종	조선	미 상	
27	순	종	조선	충남 홍성군 구항면 태봉리	

상기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장태제도는 문헌상으로 삼국시대 신라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이는 기록으로 처음 나타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기록으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행해졌던 우리민족의 아주 오랜 고유의 풍속임을 알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의 십이지는 시간신과 방위신의 역할로서 그 시간과 그 방위에서 오는 사기를 막는 수호신이다. 십이지의 열두 동물을 각 시간과 그 방위에 배열하게 된 관련 설화가 여럿 있는데, 동물의 발가락 수와 그때 그 시간에 나와서 활동하는 동물을 들어 표시했다는 것이 그 중 설득력이 있다. 십이지 동물 중 맨 처음에 오는 쥐는 앞 뒤 발가락 수가 다른데, 앞발은 홀수, 뒷발은 짝수로 특수하다고 해서 맨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 뒤로 소(4), 호랑이(5), 토끼(4), 용(5), 뱀(0), 말(7), 양(4), 원숭이(5), 닭(4), 개(5), 돼지(4)의 순이다.

이 순서는 발가락의 숫자가 홀수와 짝수로 서로 교차하여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대 중국인들은 시간을 표시할 때 그때그때 나와서 활동하는 동물을 하나 들어 그 시간을 나타냈는데, 십이지 동물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자시(23 - 01시) : 쥐가 제일 열심히 뛰어 다니는 때

축시(01 - 03시) : 밤새 풀을 먹은 소가 한참 반추하며 아침 발갈이 준비를 할 때

인시(03 - 05시) : 하루 중 호랑이가 제일 흉악한 때

묘시(05 - 07시) : 해뜨기 직전에 달이 아직 중천에 걸려 있어 그 속에 옥토끼가 보이는 때

진시(07 - 09시) : 용들이 날면서 강우 준비를 하는 때.

사시(09 - 11시) : 이 시간에 뱀은 자고 있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는 때

오시(11 - 13시) : 이 시간에는 고조에 달했던 '양기'가 점점 기세를 죽이며 '음기'가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데, 말은 땅에서 달리고 땅은 '음기'이므로 말을 '음기'의 동물로 보고 이 시각을 말과 연계시킨다.

미시(13 - 15시) : 양이 이때 풀을 뜯어먹어야 풀이 재생하는데 해가 없다.

신시(15 - 17시) : 이 시간에 원숭이가 울음소리를 제일 많이 낸다.

유시(17 - 19시) : 하루 종일 모이를 쫓던 닭들이 둥지에 들어가는 때

술시(19 - 21시) : 날이 어두워지니 개들이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때

해시(21 - 23시) : 이 시간에 돼지가 가장 단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다.

쥐가 십이지의 첫자리가 된다. 그렇게 된 사연을 말해 주는 설화가 몇 가지 있다. 옛날, 하늘의 대왕이 동물들에게 지위를 주고자 했다. 이에, 그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달한 짐승으로부터 그 지위를 주겠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각 짐승들은 기뻐하며 저마다 빨리 도착하기 위한 훈련을 했다. 그 중에서도 소가 가장 열심히 수련을 했는데, 각 동물들의 이런 행위를 지켜보던 쥐가 도저히 작고 미약한 자기로서는 먼저 도달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 중 제일 열심히 소에게 붙어 있었다. 정월 초하루가 되어 동물들이 앞 다투어 달려왔는데, 소가 가장 부지런하여 제일 먼저 도착하였으나, 도착한 바로 그 순간에 소에게 붙어 있던 쥐가 뛰어내리면서 가장 먼저 문을 통과하였다. 소는 분했지만 두 번째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쥐가 십이지의 첫머리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미약한 힘을 일찍 파악하고, 약삭빠르게 피를 썼기 때문이다.

선조대왕 때 어느 날 경연에 임하셨는데 쥐 한 마리가 어전을 지나갔다. 선조대왕은 매우 의심쩍은 기색으로 '쥐란 짐승은 저렇게 외모도 못생겼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많거늘 어찌하여 육갑(六甲)의 쥐로 십이간지 중 첫자리에 놓았는고? 경들은 그 까닭을 아는가? 하는 하교가 있었다. 그 때 유희춘이 대답하기를 '다름이 아니오라 쥐의 앞발가락은 넷이오, 뒷 발가락은 다섯입니다. 그러하온데 음양(陰陽)하에 짝이 맞는 수는 음에 속하옵고 짝이 맞지 않는 수는 양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넷은 음수요, 다섯은 양수입니다. 여러 짐승 중에 한 똥똥이에 이와 같이 음양이 상반되는 짐승은 쥐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하온데 원래 음기라는 것은 밤중이 되면 사라지고 뒤미처 양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와 쥐로서 열두시 중에 첫 꼭대기에 놓아 자, 축, 인, 묘 등으로 나누게 된 것은 음에 속하는 앞발을 내디딘 뒤에 양에 속한 뒷발을 내디디는 뜻을 취한 것이니 즉 밤 열두시는 양기가 생기는 때인 까닭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설화는 쥐의 앞발과 뒷발의 숫자가 다른 점을 음양오행으로 설명한 것이다. 십이지가 방위신과 시간신의 개념에서 시작한 후 오행가(五行家)들은 십간과 십이지에다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의 오행을 붙이고 상생상극(相生相剋)의 방법 등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배열하여 인생의 운명은 물론 세상의 안위까지 점치는 법을 만들어 냈다.

12지의 의미체계

구 분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동물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시 간	23시 ~ 01시	01시 ~ 03시	03시 ~ 05시	05시 ~ 07시	07시 ~ 09시	09시 ~ 11시	11시 ~ 13시	13시 ~ 15시	15시 ~ 17시	17시 ~ 19시	19시 ~ 21시	21시 ~ 23시
달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방위	북	북북 동	동동 북	동	동동 남	남남 동	남	남남 서	서서 남	서	서서 북	북북 서

옛 이야기나 동요, 민화, 동시 등에서 토끼는 조그마하고 귀여운 생김새, 놀란 듯한 표정에서 약하고 선한 동물, 그리고 재빠른 움직임에서 영특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옛 사람들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계수나무 아래에서 불로장생의 약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의 모습을 그리며, 토끼처럼 천년만년 평화롭게 풍요로운 세계에서 아무 근심걱정 없이 살고 싶은 이상 세계(理想世界)를 꿈꾸어 왔다. 토끼는 장수의 상징(an emblem of longevity)이며, 토끼는 달의 정령(the vital essence of the MOON)이다. 토끼는 새해를 맞이하기 이전까지는 언제나 자신이 만든 행로로 다니는 외길 인생이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고 새싹이 돌아나는 봄이 오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다른 동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명석한 두뇌로 수학적인 통행로를 생각하고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을 자기의 안식처와 연결해 놓을 줄 아는 치밀하고 명석한 동물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인간사에도 치밀하고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여 주로 학자나 교직자로서의 임무를 맡는 외길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와 반면, 자신의 체질에 적합한 직업이야 말로 의욕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뛰는데 과분한 욕심으로서 불황의 늪(겨울, 새해를 맞이하기 전)인 기간에 사세를 확장 하던가 분수에 어긋나게 위를 쳐다보며 보행한다면 순식간에 일이 벌어진다. 토끼는 뒷에 걸려 꼼짝없이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토끼라는 높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앞으로만 급하게 전진할 뿐,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면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사태를 살필 줄도 알아야 하는데, 빠지면 빠질수록 냅다 전진만 해서 폭삭 망하는 신세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결국 사업은 망하고 몸은 병들어 폐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토끼가 다니는 통로망은 철두철미하고 질서 정연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서 언제나 한계선과 거리감을 두어 위·아래를 분명히 하고 이론적으로도 앞뒤를 맞춰 질서 정연하게 대화를 나누는 소질이 다분하다.

토끼가 들어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뚜렷한 이론을 펼치나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를 쉽게 현실과 결속시키려는 무모함을 저지르기도 한다. 영리하면서도 깜짝깜짝 잘 놀래는 토끼는 여성의 마음을 상징하며, 또한 토끼는 음(陰)이니 음(陰)의 여신이다. 깊은 산 속이나 야산에서 야행을 즐기며 동이 트는 동쪽을 향해 뿔려 있는 범의 굴에서 겁도 없이 아침잠을 줄다가 범이 밖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굴로 돌아와서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으며 잠을 청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토끼의 눈이 빨강색이 된 여성을 대표하는 산신이자 산신을 보조하는 산신령을 뜻하기도 한다. 토끼는 원숭이의 궁둥이를 싫어한다. 자신의 눈 색깔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묘신원진(卯申怨嗔)이 된 이유이다. 자고로 세계 어느 곳을 가보아도 원숭이가 사는 곳에 토끼가 같이 사는 법이 없다고 한다. 참으로 자연의 이치가 묘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토끼는 돼지의 분비물 냄새와 힘을 부러워하고, 양의 초연한 청승스러움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여 해묘미삼합(亥卯未三合)이 되는 것이다. 돼지 코와 양의 코를 반반씩 닮은 것이 토끼의 코이기도 하다. 성격면에서도 돼지의 우묵함과 양 뿔의 건방진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신도비는 죽은 사람의 사적을 기록하여 묘 입구에 세운 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의 뛰어난 업적을 후세에 전하여 귀감이 되기 위해서이다. 신도비는 귀부, 비신, 옥개석의 세부분으로 나뉘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신도비를 살펴보고, 신도비의 인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홍욱 신도비는 대산을 대로리 먹수지에 있다. 신도비는 김홍욱 묘소의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오석의 신도비는 장방형의 화강석 대좌위에 세워져 있는데, 높이 221cm, 너비 88cm, 두께 43cm이며, 전면에 명문을 음각하고 있다. 신도비명은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윤득화(尹得和)가 썼으며, 유척기(兪拓基)가 새겼다. 신도비를 보호하는 비각은 1983년에 세웠다.



학예연구사
이강열



김홍욱 신도비

김홍욱(金弘郁 1602~165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문숙(文叔), 호는 학주(鶴洲)이다. 1635년(인조 13)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하며, 청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하였고, 1646년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권신 김자점과의 불화로 사직하였다. 효종 즉위(1650년) 이후 집의, 승지를 거쳐 충청도관찰사(忠道觀察使)가 되어 충청도에서 대동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1654년에는 황해도관찰사로 전임하였는데 이 해에 효종이 구언교(求言敎)를 내리자 8년 전 사사된 회빈 강씨(소현세자의 빈)의 억울함을 말하고, 그 원을 풀어줄 것을 상소하였다. 그가 이 말을 꺼내자 격노한 효종에 의해 하옥되어

친국을 받던 중 장살되었다. 김홍욱의 관작 복구는 효종 10년(1659년)에 송시열과 송준길의 주청으로 이루어졌으며, 1718년(숙종 44)에는 민진후의 주청으로 이조판서에 증직되었고, 이듬해인 1719년에는 문정공이라는 시호까지 받게 되었다.

김홍익 신도비는 지곡면 도성리 선바위 포구 안쪽에 있다. 신도비는 장방형의 화강석 대좌 위에 화

강석재 비신을 세우고 팔작지붕 형태의 이수를 올렸다. 비신은 화강암을 이용했는데 높이 186cm, 너비 53cm, 폭 45cm로 4면 전체를 음서하였으며, 팔작지붕형태를 띤 이수는 화강암으로 처마의 반전이 있다. 1826년에 김홍익의 5대손인 김민주(金民柱)가 건립한 것으로 김재찬(金載瓚)이 찬하고, 김노경(金魯敬)추사 김정희의 부친)의 글이며, 이조원(李肇源)이 전서를 썼다.

김홍익(金弘翼 1581~1636)은 본관이 경주이고, 자는 익지(翼之), 호는 묵재(默齋)이다. 앞서 살펴본 학주 김홍욱의 장형이다. 1632년 연산 현감으로 재직 중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 태종이 침입하자 인조는 부득이 남한산성으로 파천하고, 전국에 근왕병을 모집하였다. 김홍익은 쌀섬 위에서 군대를 지휘하면서 격전 끝에 10여명의 적을 살해하였으나, 불행히도 칼이 부러졌고 적진에 들어가 분전하다 결국 전신에 칼과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다. 그 후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충절을 기려 정문을 세워 주었으며,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충민(忠愍)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김홍익 신도비



김유경 신도비

김유경 신도비는 지곡면 연화리에 있다. 무덤의 북쪽 길가에 신도비가 북서향으로 세워져 있다. 신도비는 장방형 화강석 기단 위에 높이 195cm, 너비 81cm, 두께 40cm의 비신을 세웠으며, 4면에 비문을 음서하였다. 비신위로 옥개석을 올렸는데, 처마가 비교적 세련되게 처리되었다. 외손자인 유척기(俞拓基)가 짓고 전서를 썼으며, 윤급(尹汲)이 글씨를 썼다. 1764년 아들인 김한방이 건립하였다.

김유경(金有慶 1669~1748)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덕유(德裕), 호는 용주(龍洲) 또는 용곡(龍谷)이다. 1693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710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설서를 거쳐 1714년 함경북도암행어사를 시작으로 사간·교리·대사·대사간·동지경연·참판·도승지·한성판윤·공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725년 호조참의가 되고, 도승지·대사헌을 거쳐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오고 이듬해 이조참판이 되었다. 1730년 형조참판이 되고, 1736년 호조참판·부제학을 거쳐 판윤·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1744년 대사헌이 되었고, 1746년 좌참찬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1748년 숭록대부에 특진되었으며, 1761년(영조 27)에 효정(孝貞)이라는 시호 및 명정을 받았다.



김운택 신도비

김운택 신도비는 고남리(아남이) 입구인 남산의 북향사면 말단부에 위치한다. 신도비는 화강암을 이용하여 장방형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팔작지붕 모양의 옥개를 올린 형태이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186cm, 너비 53cm, 두께 45cm이다. 윗부분에 ‘유명조선국호조참판증이조판서시충정김공신도비(有明朝鮮國戶曹參判贈吏曹判書諡忠貞金公神道碑)’라고 전서로 쓰여 있고, 4면 전체에 김운택의 행적과 가계에 관하여 자세하게 쓰여져 있다. 비문은 윤봉구가 찬하였는데, 1882년(고종 19)에 신도비를 세우면서 6대손 김봉수(金鳳洙)가 追記를 짓고, 윤봉구의 글도 함께 썼다.

김운택(金雲澤 1673~1722)은 본관이 광산이고, 자는 중행(仲行), 호는 백운헌(百雲軒)이다. 1699년에 사마시에 합격, 진사가 되고, 1704년 문과급제 후, 여러 벼슬을 거친 후 승지가 되고, 이후 세자의 명에 의해 충청도균전사(忠淸道均田使)가 되었다. 그 뒤 부제학, 호조참판, 형조참판에 이르렀으나 1722년에 반역을 도모한다하여 장살되었다. 1779년(정조 3) 충정공(忠貞公)의 시호를 받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한편, 아들인 미암(迷庵) 김위재(金偉材)가 1813년(순조 13)에 인지면에 있는 송곡사에 배향되었다.

운산면 여미리 서당골 중앙에 이택 신도비가 남동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 신도비는 장방형의 화강암 기단석에 너비 103cm, 두께 44cm, 높이 234cm의 비신을 올렸고, 옥개석은 반전이 강하며 기와골 무늬가 있다. 1731년(영조 7)에 세워졌는데, 비문은 윤봉구(尹鳳九)가 찬하고, 김진상(金鎭商)이 썼으며, 조상(趙尙)이 전(篆)하였다.

이택(1651~1719)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운몽(雲夢)이며, 이진백의 아들이다. 1676년(숙종 2)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고산진 첨절제사(高山鎭 僉節制使)등을 역임하였으며, 그 뒤 남구만(南九萬), 이상진(李尙眞) 등과 교유하면서 이들의 추천으로 도총부경력(都摠府經歷)이 되었다. 이어 사복사 내승(司僕寺內乘)을 거쳐 훈련원정, 전라좌도수군절도사, 평안도 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품성이 순결하고 청렴하여 이름이 높았다. 문예에도 조예가 깊어 시조 2수가 전한다.



이택 신도비

서산지역에는 이처럼 명현들의 신도비가 많이 있다. 이들 신도비 자료들은 조선시대 인물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으며, 조사를 통해 관련기록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김적 및 김홍욱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고시 된 것은 그 가치를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장(書狀)』

문 성 환 (수유너머 남산 학인)

대혜종고(大慧宗臯, 1089-1163) 스님의 『서장(書狀)』은 대중적인 책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은 종교를 떠나 많은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필독서중 하나였다. 오늘날의 말로 풀면 단순히 ‘편지글 모음’ 정도에 해당하는 이 책이, 즉 대혜 스님의 편지글이 어째서 지식인들에게 필독서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서장』이 당대의 유학 사대 부들과 나눈 편지글이면서 또한 ‘공부’에 관한 대혜 스님의 가르침이 잘 드러나 있는 문장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마음 공부를 강조하는 학문이자 종교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공부는 어떻게 정의 되고 어떻게 전수되는 것일까. 대혜 스님은 먼저 조용한 곳을 구해 공부하려는 학인(學人)들의 마음가짐이 갖는 병폐부터 지적한다. 절을 찾는 사대부들의 마음 속에는 현실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겠다는 계산이 들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조금만 동요가 생겨도 금세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즉 절집의 고요함은 결코 한적하고 번뇌없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요청의 결과가 아니다. 대혜 스님은 오히려 절집에서 행하는 조용한 명상 공부야말로 ‘돌로 눌러 놓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요한 삼매(靜勝三昧)가 주는 매혹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 대혜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흔히 불교와 선(禪) 등에 대해 우리가 갖는 일반적 상식, 즉 정적(靜的)이고 탈속(脫俗)적인 이미지를 통쾌하게 부술 뿐 아니라, 공부가 삶의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탈속자 스님이 현실 정치의 관료 사대부들에게 삶과 현장에 관해 충고한다는 아이러니! 이러한 구도가 가능한 것은 대혜 스님의 말과 글이 스님의 구체적인 현실과 절실한 실존적 문제 위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혜 종고는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는 공부에 관해 이렇게 충고한다. 공부는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되며, 생과사를 넘어서 줄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 놀랍게도 스님의 편지 속에는 이러한 언표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순간 삶은 죽음과 분리되지 않고, 공부는 삶과 유리되지 않는다. 백척(百尺)의 장대 끝에서 진일보하는 것이 깨달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음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지금 우리가 선 자리를 백척의 장대 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사대부들이 대다수 이 일에서 모든 것을 바로 깨칠 수 없는 것은, 다만 마음보가 너무 똑똑하고 지견(知見)이 매우 많아서 종사(宗師)가 입 여는 것을 보면 벌써 한꺼번에 짐작하여 알아버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리어 아둔한

자들이 나쁜 지견이 많이 없었기에 갑자기 하나의 기틀이나 경계가 주어지는 한 마디 가르침에서 깨우치는 것만 못하다. ...마음보가 똑똑한 자는 도리어 똑똑한 마음보가 장애가 되어 깨달음을 한숨에 터뜨릴 수 없다. 설사 똑똑한 알음알이 위에서 배우더라도 자기 본분사(本分事) 위에서는 갈수록 더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

아둔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아둔한 것은 오히려 축하받을 일이다. 똑똑한 마음이야말로 오히려 깨달음을 한숨에 터뜨릴 수 없게 하는 장애가 된다. 깨달음의 길에 있어 똑똑한 마음은 추운 겨울의 부채처럼 쓰일 데가 없다. 중요한 것은 역시 마음을 내는 일이다. 분별하는 마음을 부수고, 고요한 삼매에 깰달리지 않으며, 반드시 이번 생에 깨치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진 마음, 그리하여 갑자기 목숨조차 한 번 버리는 곳에서 바로 깨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대혜종고 스님이 당부하는 공부의 핵심이다. 대혜 스님의 공부를 삶으로 바꾸면 스님의 말씀은 현대인들의 일상적 가르침으로 전환된다.

대혜 스님의 일갈이 단순한 노스님의 호통이 아닌 것은, 바로 지금 이번 생에서 무언가를 끝장내겠다는 단호함과 치열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서로 다른 문제 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이 순간 필요한 건 지금 나의 문제를 기어이 뚫고 넘어가겠다는 용기다. 차가운 겨울 바람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이 좀 더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걸 금세 안다. 목이 마른 사람은 어디에서든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물을 구하기 위해 절실히 물을 찾는다. 요컨대 공부란 바로 이렇듯 내 자신에게 절실한 문제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공부란 내가 아는 지식을 활용해 또 다른 지식을 첨가하고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진전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명한 사대부들이 어째서 산속 선방의 스님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대혜 스님은 사대부들의 지식들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구원할 지혜를 구하는 데에는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 요컨대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떠한 힘도 되지 못하고 용법을 갖지 못하는 얇은 단지 지식일 뿐이다.

선사(禪師)답게, 대혜 스님 역시 한 순간에 확연히 깨닫는 경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요컨대 깨달음은 분명히 돈오(頓悟)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깨달음이 순간적이고 돌연히 온다는 말과 수행자의 꾸준한 공부가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진부한 말로 비유하자면, 깨달음은 순간일지 몰라도 그 깨우침은 언제나 성실함과 절실함에 바탕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역설적이게도 모든 깨달음의 과정에는 '생과 사를 넘는' 치열함이 '반드시' 있다. 중요한 건 돈오(頓悟)냐 점수(漸修)냐가 아니다. 이 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돈오와 점수는 깨달음을 독려하는 서로 다른 층위의 방편일 뿐이다. 삶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돈오와 점수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드시 이번 생에 깨달겠다는 용기란 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분별심(경계)들을 넘어 서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혜 스님의 말에 따르면, "진정한 적멸이 눈앞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타오르며 일어났다 사라지는 번뇌 속에서 훌쩍 이 경계를 한 번 뛰어 넘어야만" 한다. 이때의 적멸이란 크게 깨달아 "가슴 속이 환해져 백 개 천 개의 해와 달"을 갖는 것이다. 즉 모든 경계로부터 확연해지게 된다는 것! 삶이란 가슴 속에 가득찬 백 개 천 개의 해와 달을 갖는 그토록 명백하지만 확연한 무엇이라는 것!!

한지공예란?

우리민족은 생활과 가까운 곳에 늘 한지를 이용해왔다. 질이 좋은 닥나무를 이용해서 한지를 만들고 여기에 염색을 하고 한지를 겹겹이 두껍게 발라 틀을 만들고 오려서 붙여서 다양한 한지공예품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한지공예는 독특한 질감과 색채감으로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그 쓰임새나 용도가 문양과 색채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실용적이고 만들기 쉬워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박 정 란
한지공예강사

한지공예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지승공예, 지호공예, 지화공예, 전지공예로 나누어지는데 전지공예는 여러 가지 골격 위에 한지를 덧발라 붙이고 여러 가지 문양을 오려 붙여주며, 반진고리, 장, 함, 서안, 지통 등 많은 한지공예작품이 있다. 지승공예는 종이를 꼬아서 직조하듯이 엮어서 만든 것인데 바구니, 망태그릇 등이 있으며, 지호공예는 종이를 잘게 찢어서 물에 불려서 일정한 틀에 찍어낸 기법으로 탈이나 그릇 만들기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지화공예는 종이를 꽃을 만드는 공예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한지공예는 전지공예의 한 종류인 것이다. 전지공예는 은은하면서도 오색찬란한 자연의 색을 우리의 안방에 그대로 가져다 놓아 독특한 미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한지공예에 쓰이는 색과 문양은 각각의 상징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장식성과 더불어서 단순한 공예작품을 넘어서 하나의 삶, 하나의 종교적 차원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한지공예에서 보여주는 갖가지 문양과 색은 적절하게 대비시켜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우리선조들이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한지공예의 쓰임새에 따른 종류를 보면 여성용기물로 반진고리, 예단함, 과반, 좌경, 상, 패물상자, 동고리, 장, 농 등이 있으며, 남성용기물로는 붓통, 서안, 연상, 의결이장, 갓집 등이 있다. 일반 생활기물로는 우산, 찻상, 그릇, 약장, 연, 부채 등이 있다 이처럼 한지공예품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생활소품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비하고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대변할 수 있는 뚜렷한 개성을 지닌 한지공예는 손쉽게 접하고 만드는 방법이 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공예이다. 요즘은 전통체험에 관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이고 있어서 한지공예가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많은 한지공예 작가들이 작업을 통해 많이들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지공예가 옛 전통성이 무시되고 상업적으로 흐르는 경향들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들 있지만 너무 전통성을 고집하는 것 보다는 요즘 흐름에 맞게 한지공예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조상들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유산을 지키는 방법일 것이다.



단군 십계명 (檀君十誡命)

우리의 옛 조상들은 단군시대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이지적이며, 진복적이고, 활동적이면서 낙천적인 요소가 깃든 어린이 십훈(十訓)을 통해 천심(天心)을 고스란히 간직한 어린이들에게 동작으로 재롱을 부리게 하는 독특한 교육을 전수해 왔습니다.

한국인의 오랜 생활 역사 속에 전해오는 단군의 10개조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를 단군십계명(檀君十誡命), 또는 단동십훈(檀童十訓)이라 합니다.

1 : 弗亞弗亞()

동작 :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린이의 허리를 잡고 세워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기우뚱 기우뚱하면서 “부라부라”라고 부르며 귀에 들려주십니다.

불(弗)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이고 아(亞)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 간다는 뜻을 말하며 “弗亞弗亞”는 사랑으로 땅에 내려오고 神(신)이 되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무궁무진한 생명을 가진 어린이를 예찬하는 뜻입니다.

“나는 귀한 자손이니 이 세상에 빛이 되거라”라고 해석하면 될 거예요. (부라부라)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시면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시며 동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아가. 귀한아가. 이 세상에 흰히 비칠 빛이 되거라.”

2 : 詩想詩想()

동작 : 어린이를 앞혀놓고 앞뒤로 꼬덕꼬덕 흔들면서 “시상시상” 하고 부릅니다.

사람의 형상은 마음. 신체는 태극과 하늘과 땅에서 받은 것이므로 ‘사람이 곧 작은 우주’라는 인식아래 조상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 태초의 하느님을 나의 몸에 모신 것이니 조상님과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 입니다. 어른을 공경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하시면 됩니다.

3 : 道理道理()

동작 :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

천지에 만물이 무궁무진한 하늘의 道理(도리)로 생겨나듯이 너도 도리로 생겨났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며, 대자연의 섭리를 가르치는 뜻 입니다.

4 : 持髻持髻()

동작 : 두 손을 앞으로 내 놓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

그윽하고 무궁한 진리는 금방 깨닫거나 알 수 없으니 두고두고 헤아려 깨달으라는 뜻 입니다.

5 : 坤世申也()

동작 : 집게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을 짚는 동작으로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사람과 만물이 서식하는 땅의 이치도 깨닫게 되어 천지간의 무궁무진한 조화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6 : 西摩西摩()

동작 : 어린이를 세우면서 하는 동작

서(立)라는 말로 (섬마섬마)라고 하는데 정신문명인 剛常(강상)의 이치만으로 안 되므로 西牟(서마도)에 입각한 물질, 문명을 받아 들여 발전해 나가라는 뜻으로 (섬마섬마) 또는 (따로따로)라고 부르기도 하며, 독립하여 정신과 물질에서 발전하라는 뜻입니다.

7 : 業非業非()

무서움을 가르치는 말로서 어릴 때부터 조상님들의 발자취와 하느님의 뜻에 삶을 살라는 뜻인데 자연 이치와 섭리에 맞는 업이 아니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할머니나 어머니가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가거나 위험한 동작을 하려고 하면 업비업비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 : 亞合亞合()

동작 : 손바닥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 내는 동작

두 손을 가로모아 잡으면 亞(아)자의 모양이 되어 이것은 천지좌우의 형극을 이 몸속에 모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놀이가 아가 입에 대고 “아~~~”소리 내는 것 아니죠?

9 : 作作弓作作弓()

동작 : 두 손바닥을 마주 치며 소리 내는 동작

천지좌우와 태극을 맞부딪쳐서 하늘에 오르고 땅으로 내리며, 사람으로 오고 신으로 가는 이치를 깨달았으니 손뼉을 치면서 재미있게 춤추자는 입니다.

세상에 짹짹궁에 이런 심오한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10 : 秩羅阿備舌舌議()

동작 : 나팔을 불며 춤추는 동작

천지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地氣(지기)를 받아 생긴 육신을 活活(활활)하게 자라도록 즐겁게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도리도리 짹짹궁 곤지곤지 짹짹

어릴 때 아련한 추억 속에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길이 와 닿는 추억이 느껴 지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4~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중의 대다수의 말들이 머리 속에서 지금도 들리는 듯 잠재되어 남아 있을 것입니다.

(白彌심터에서 옮겨 쓰다.)

제공자 김 현 구



박첨지 놀이를 하면서...

음암중학교 2학년 1반 조 상 식

난 음암중학교의 박첨지 놀이 연극부에 속해있다. 박첨지 놀이란 현재 무형문화제 26호로 지정되어있는 박과 여러 가지 소품들을 이용한 인형극이다.

학기 초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 작년 3월쯤이다. 그 때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1년 동안 하게 될 많은 것들을 정한다. 가령 반이라든지, 혹은 부서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정하게 된다. 나도 예외는 아닌지라 부서를 꼭 하나는 결정해야했다. 그 때 축구라든가, 아니면 합창 그 외에도 다른 부서들이 많았지만 내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게 바로 '박첨지 놀이 연극부'였다. 보면서 생각했다. '연극이라... 살면서 이런 거 해볼 기회 흔치 않을텐데... 축구 같은 건 어른이 되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재미없으면 2학년 때 판 거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으로 박첨지 놀이 연극부에 들게 되었다. 그게 실수였다. 한번 하면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은 형들한테 배우고 올해부터 나와 내 친구들이 연극을 하게 되었다.

부서를 바꿔달라고 역지를 써보기도 했지만 역시 무리였다. 내 역할은 ‘명노’ 였는데 그냥 잠깐 나와서 주인공인 ‘박첨지’ 와 싸우고 들어가는게 다인 역할이었다. 연극에 자신이 없던 나에게는 대사가 적어서 좋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좀 아쉬웠다.

연습은 한달에 한번 그러니까 3째주 토요일의 3, 4교시인 재량활동 시간에 했다, 처음에는 연습을 나갈 때마다 ‘아 지루해 역시 다른 부서를 할걸 그랬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데 시간이 연습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이 있다. 이런 상황을 내 힘으로 극복하고 팀원들과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극이 재미있어졌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재미났다. 그러다 보니 역할이 더 늘어났다. ‘공중사’ 라는 절을 짓는 장면이라든가, 상여가 나가는 장면에서도 나의 역할이 생겼다. 그게 또 기분이 좋았다. 나의 자리가 생긴 기분이었다.

1년 동안 연습은 계속되었다. 물론 연습은 힘들었다. 인형을 들고 연극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상여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무겁지는 않는데 부파가 큰 탓에 정리하기도 힘들고 연극을 할 때도 이걸 혼자 못 든다. 그래서 둘이 들고 움직이는데 이것도 서로 호흡을 맞추느라 신경쓰면 상당히 귀찮다. 또, ‘공중사’ 라는 절을 짓는데, 이걸 또 짓다가 문짝이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 또 다시 붙이다가 옆 문짝이 떨어진다. 그나마 연습이니까 웃으면서 넘어가지 공연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다. 그래도 ‘이런 걸 극복하는 재미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간 짜증났던 일도 어느 정도 잊혀진다. 그리고 연습에 몰두하다 보면 평소의 고민거리도 다 없어져서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8개월째가 될 쯤에 드디어 「향토사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산문화원에서 실시하는 공연 일정이 잡혔다. ‘우리가 연습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그저 두려울 뿐이었다. 공연 도중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공연을 망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이 많이 들었다.

공연은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계획되었다. 시간은 좀 있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연습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선생님께 이것저것 지적받기도 했지만 하나하나 고쳐나갔다.

그렇게 해서 공연 날이 다가왔다. 선생님께선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말이 쉽지 여러 사람 앞에서 뭔가를 할 때 긴장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박첨지 연극부원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연극을 하기 위해 몇몇 대사가 많은 부원들은 핀 마이크를, 나머지 대사가 적은 부원들은 그냥 한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하는 형식으로 했다. 참 이게 마이크를 대고 하니 더욱 긴장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우리 단원들 모두 잘 적응해 주었다.

연습하는 것도 힘들지만 연극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게 힘들었다. 우선 장비! 연습 때는 장비가 다 부실에 준비가 되어있었지만 공연은 달랐다. 그걸 들고 2층, 3층으로 날라야 했다. 거기다가 새로운 장비인 무거운 스피커가 추가 되어서 죽을 맛이였다. 또 거기다가 공연 가는 곳마다 강당이 1층인 곳이 없었다. 최소 2층이였다. 그리고 둘째로 공간이 많이 한정되어 있다. 연습 때는 천막 밖으로 나와도 되지만 공연은 밖으로 나오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까... 마무튼 흥이 깨진다는 이유로 밖에 나오는 게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또 앞에서 말한 연습할 때 힘들다고 말한 '공중사' 라는 걸 짓다가 실수하면 다시 지어야 하는데 절이야 얼마든지 다시 지으면 된다. 하지만 그럼 악사들에게 미안하다. '공중사' 절을 짓는 동안 계속 풍물을 연주하는데 절의 완성시간이 길어질수록 힘들어 지는 건 악사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연극 중간 중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런 것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나 연극이 끝나면 박수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박수 소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크게 들린다. 그리고 일단 연극이 끝나는 시점에서도 엄청난 기쁨이 몰려온다. 정말 이걸 위해 2년을 연습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아까울 것 없다. 오히려 이득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을 관람한 아이들에게 인형을 잡을 기회를 주었다. 그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고 있자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박첨지... 하길 잘했어’

만주국경지역 (大連, 丹東, 集安, 桓仁) 역사 탐방기

서산문화원 이사 이영하



단둥에서 집안까지는 280km, 5시간을 달리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를 계획으로 낸 군사용 고속화 도로라 한다. 가로수는 아카시아가 대부분이고 집안 가까이에는 버드나무를 심었다. 평지에는 포도밭도 보이고 적석총과 개축한 국내성 석벽도 나타난다.

집안시는 인구 26만중에 조선족이 1만 6천명 살고 있다고 한다.

조선족 식당에서 적쇠에 소고기를 구워 먹었다. '고기 손질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리 연하고 맛이 좋으며 또 된장은 어떤 식으로 담갔기에 깊은 감칠맛이 나는지 모르겠다.'며 식당을 경영하는 'ㄱ' 선생의 감탄사가 연발이다. 아침에 강가에서 가이드한테 들었던 말이 마음에 걸려 배낭에 넣었던 백설기 떡 두덩이와 김 몇장을 놓고 나오니 마음이 가벼워진다.

집안은 고구려 제 2대 유리왕이 졸본성(환인)에서 환도성(丸都城)으로 천도하여 국내성(國內城)을 쌓고 이후 426년간 수도로 삼았다. 따라서 1,200여기의 적석총과 왕릉으로 추정되는 룡이 16기로 복장품은 모두 도굴 당한 빈 무덤이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집안시 앞으로는 압록강 중류가 흐르고 뒤 3면은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어 외적 방어에 천혜의 요새지다. 오리 머리처럼 물이 푸른 압록강에 손을 담가본 후 쾌속 보트를 타니 질풍같이 달려 더욱 시원했다. 강 건너 북한 땅은 산 봉우리까지 빼기밭이고 아래 강안에는 공작물 같은 가옥 몇 채가 썰렁해 보인다.



(강건너 보이는 북한 땅)

광개토대왕비는 평원한 동산형 앞자락에 우람하게 세워져 있다. 6.27m라 하니 한국 신도비의 3배 크기로 고개를 젖히고 올라다 보인다. 서태후 때 산동성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농사짓다가 발견하여 소, 말똥을 바른 후 불태우고 세척하였는데, 응회암인지라 열에 훼손되었다 하며 모두 1775자지만 겨우 1595자 만이 식별이 가능하고 그 외 글자는 판독이 어려운 상태라 한다.

고구려 제19대 광개토대왕은 고국양왕(375~413)의 아들로 재위 22년(391~413) 중 39세 때 승하였다. 이름은 담덕(談德). 연호, 칭호는 영락(永樂)이며 비문의 내용은 고구려의 건국, 백제정벌, 신라 구원, 부여정벌, 왜군격퇴, 연나라 침입격퇴 등 64개 성 1,400 촌락을 정복하여 북경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 비는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세웠다고 한다.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라 각자했다. 고국원왕(16대 국강상왕)이 국내성을 쌓고 백제 근초고왕과 싸우다 전사한 이래 국경을 넓혀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 태왕의 능이라 의역해 본다.

이곳에서 서쪽 300여 미터 동산 위에 흑갈은 돌무지 무덤이 태왕의 무덤이라 안내한다. 그러나 느낌으로 보건대 수궁이 안된다. 주변에는 적석총과 성토총이 있다. 당시 고구려와 당나라, 신라 간에는 서로 문화 교류가 있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릉의 성토총이나 신라의 금관총과 천마총도 성토총이다. 고구려 최성기를 이룩한 위대한 부왕의 산소를 일개 장군총처럼 모실 리 없다. 하물며 장수왕의 능도 큼직큼직한 돌을 다듬어 피라미드형으로 축조했는데 할아버지 산소보다 아버지 산소를 더 웅장하게 축조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또한 서쪽 동산 끝자락의 적석총(돌무지)이 태왕의 능이라면 그의 비도 마땅히 능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적석총은 태왕의 능을 수호하는 수위장군 무덤으로 생각이 된다. 잘못된 것이 또 있다. 확실한 장수왕릉을 왜 장군총이라 지칭하는가. 이 잘못된 가이드도 인정하고 누구나 시인한다. 호태왕비가 위치한 토산 너머에는 오회분 오호묘도 모두 성토총들이다.

장수왕릉은 웅장했다. 동방의 피라미드(계단식 7층 4각형). 3층이 묘실, 5층 출입구 안에 두 개의 석관 자리만 있다. 이 능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록문화재라 한다. 왕은 99세(394~491)까지 장수하였고 79년(413~491)간 재위하였다. 남쪽으로는 아산만에서 죽령까지이고 서북쪽은 요하와



(판개토대왕비)



(장수왕릉)



만주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경으로 삼았다. 왕의 휘는 거연(巨連), 시호는 강(康)으로 국내성에서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사위가 어둑어둑 하는 시간, 우리는 오회분 오후묘 현실로 들어갔다. 다섯기의 봉토분인데 부장품은 모두 도굴당하고 벽화만 남았다. 사방의 벽 사신도(좌:청룡(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의 약동하는 그림은 힘찬 고구려인의 기상을 느끼게 한다. 천정에는 28숙(별자리)과 상상속 동물, 생활모습 등 천,지,인(天,地,人) 사상을 나타냈다. 바닥 세 개의 돌판에는 세 사람의 널자리다. 가운데를 남자로 볼때 우측의 30cm거리에는 정부인, 좌측으로 조금 더 떨어진 45cm에는 후취나 측실일까?

집안의 밤거리는 조명으로 아름답다. 크리스마스 전야나 큰 행사의 축제장 분위기다. 거리별로 다이아몬드형, 하트형 등 특색있게 꾸몄다. 누군가와 밤이 이슬하도록 견고 싶다. 우리들이 사는 시가지도 이런 것을 착안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환인(桓仁)시 20여 km지점, 눈 쌓이는 고개에서 버스의 도로이탈로 정신이 아찔했다. 여기에서 지체한 시간 때문에 오녀산성을 접기로 했다. 시내권에 접어들니 추수 끝난 질퍽한 들이다. 조각논이지만 땅은 걸어 보인다. 그러나 벼 그루터기가 오종종하니 수확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비류수가 S자(태극) 모양으로 고이듯 흐른다.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이 이곳에 나라를 세운 큰 뜻을 알 것 같다. 환인시는 전날 여진족이 많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인구 23만 중 30%가 만주족이고 조선족은 7만명이지만 교육열만은 최고이며 이중 2만여 명이 북한 사람들이라 한다.

졸본성문 밖 중턱 산자락에 자리한 고려성(高麗城) 식당에서 한식을 했다. 식당 건물 규모가 크고 경관도 좋다. 실내 벽에는 총리하기 전에 왔던 이해찬이 붓글씨 쓰는 모습과 글씨, 주인 조선족 여인과의 기념사진을 확대해서 걸어놨다. 계속 내리는 눈발 속에서 식당 옆 산기슭에 올라 20리 거리의 오녀산성(五女山城)을 바라보았다. 자연 암벽의 독산 위에 다섯 여인이 쌓았다는 전설의 성(820m).

남북 1000m, 동서300m의 타원형 성 위에는 년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어 침입한 적군이 성 아래에서 배회만 하다 돌아가곤 했다는 난공불락의 성이다. 고구려가 초기에 국기를 다질 수 있었던 하늘이 지어준 성 아래 혼가강 가에는 건국 시조 동명왕(東明王)의 무덤도 있다 한다. 왕의 성은 고(高)요, 휘는 주몽(朱蒙)외 몇 개가 있다. 기원전 37년에 나라를 세우고 3년 뒤에 성곽과 궁실을 짓고 2년 뒤에는 행인국을 멸망시켰으며 다시 5년 뒤에는 북옥저를 합치는 등 고구려를 키웠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로부터 듣는 이야기도 쓸쓸했다.

- 동북3성 사람들은 해지면 자고, 서남 사람들은 해가 저야 활동을 한다.
- 중국에서 사과는 심양과 산둥, 배는 단둥, 석류는 서안에서 나는 것이 맛이 좋다.
- 수풍땀 주변에 온 낚시꾼들은 잉어와 붕어를 5kg 잡으면 한 3일간 쉬면서 매운탕 끓이고 술마시다 간다.
- 3년 전까지는 돈 있는 도시 사람이 농촌의 땅과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농촌은 농사짓는 사람끼리, 도시는 도시사람끼리만 사고 팔 수 있다. 농촌사람 보호책이란.
- 중국 아파트는 압록강가에 지어야 잘 팔린다. 그러나 문, 주방, 화장실은 사서 들어가는 사람이 꾸며야 한다.

바람찬 만주 국경 지역을 역순하고 돌아오니 보이지 않던 생각들이 비로서 앙금지기 시작한다.

지난날, 삼형제국(고구려, 백제, 신라) 중 가장 씩씩했던 만형격의 고구려가 패망하고 전승자들의 채찍아래 인질로 끌려간 유민들이 그곳 황량한 이국땅에서 온갖 멸시와 학대, 질곡 속에서도 굴욕을 이겨내며 곳곳이 살아 나왔다는 사실. 그 자손들이 우마차 바퀴에 깔려도 죽지 않는 질경이처럼 질긴 뿌리를 내리고 자녀를 새 고려인으로 양육해 온다는 현실. 우리들이 광활한 대륙에서 좁은 반도 안으로 들어와 안주 할지언정 이 엄연한 사실과 현실은 꼭 인식해야 한다.

비록 경제적으로 G20의장국 위상에 있지만 이 동질의식만은 속 깊이 간직할 일이다. 그리하여 문명의 안일에 점차로 나약하며 원향(原鄉)을 망각해가는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대명제(大命題)는 바로 이 복고정신(復古精神)이라는 것을 이번 탐방에서 자각했다.

문

화

원

소

직

■ 문화원 연간행사 계획

- 2월 :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모집, 노인일자리사업
 - 3월 :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 4월 : 서산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청소년문학제
 - 5월 : 성년례,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명사초청 문화특강
 - 6월 : 문화유적 현장학습, 단오한마당
 - 7월 : 찾아가는 다도교실
 - 8월 :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모집
 - 9월 :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 10월 : 문화탐방, 문화가족 한마당
 - 11월 :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 전시회
 - 12월 : 서산문화대상, 청소년문화상 시상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산문화원 회원모집

㉸ 문화원이 하는 일

-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 기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 문화원 회원이 되시면

- 문화원이 발간하는 일체의 간행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각종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됩니다.
-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대여와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운영과 활동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지역문화발전에 폭넓게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원 회원 가입안내

- 가입방법 : 입회원서 작성 후 연회비 납부
- 방 문 : 충남 서산시 읍내동 516
- 전 화 : 041-669-5050 FAX : 041-669-4567

㉸ 문화원 회비납부안내

- 연회비 : 20,000원 이상
- 계좌번호 : 농협 455-01-169647 (예금주 : 서산문화원)

※ 모든 회비는 문화원 운영 및 각종 문화활동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도움과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한기홍(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이영하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남현우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김시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장예숙 20,000원
• 강원식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홍국선 20,000원
• 한기송 (서산시 해미면) 10,000원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박연숙 20,000원
• 김익식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유수연 20,000원
• 김영아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한명진 20,000원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장명석 20,000원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전영인 20,000원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2,000원	• 강지순 20,000원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이민재 (서산시 부석면) 240,000원	• 임덕재 (서산시 석남동) 240,000원
• 최기봉 (서산시 동문동) 240,000원	• 류용두 (서산시 잠홍동) 240,000원
• 성두현 (서산시 해미면) 240,000원	• 이정례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이준호 (서산시 읍내동) 240,000원	• 이용조 (충북 청주시) 30,000원
• 최차열 (서산시 수석동) 240,000원	• 서산서도회 200,000원
• 한동명 (서산시 읍내동) 240,000원	• 이영하 (서산시 읍내동) 240,000원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